

상처 입은 영혼 미농

- 트라우마 이론의 관점에서 본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조성희 (서울대)

I. 서론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대해서 “가장 가늠할 수 없는 산물 가운데 하나”(MA 14, 49)라고 말한 바 있으며 미농이라는 인물은 이 소설의 숨겨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미농을 단순히 에피소드로 평가하는” 스타엘 부인의 견해에 대해 괴테는 “하지만 이 작품 전체가 이 인물 때문에 쓰였다”(MA 5, 648)¹⁾고 밝힌 바 있다. 미농은 이 “가장 가늠할 수 없는” 소설의 “수수께끼”(451)²⁾로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 인물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은 다채로운, 종종 상호 모순되는 해석을 낳았다. 20세기 초반의 연구에서는 자전적,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지배적 이어서 괴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미농이라는 인물의 모델로 제시되었으며³⁾ 미농은 히스테리의 고전적인 사례 내지 괴테의 정신적 갈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경우로 해석되었다.⁴⁾ 20세기 중엽 이래로는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이 계속해서 시도되는 한편 이 인물의 상징적 의미나 시학적 의미를 묻는 해석이 주를 이루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Verletzte Seelen: Psychische Traumata in Goethes Romanen *Wilhelm Meisters Lehrjahre* und *Die Wahlverwandschaften*』(Würzburg 2015)의 일부를 국역 및 보완하고 국내의 선행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 1) Mit Kanzler von Müller. Berka, 29. Mai 1814.
- 2)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의 인용은 프랑크푸르트 판본(FA) 9권에 따라 본문 내에 쪽수를 직접 표기한다.
- 3) 이러한 자전적 해석에 대해서는(Vgl. Kniesche 1993, 63; Schöblier 2002, 64)
- 4) 초기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대해서는(Vgl. Fick 1987, 95; Kniesche 1993, 63-66)

는 가운데 그 밖의 다양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우선 국내외의 주요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쿠르트 아이슬러는 괴테의 전기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연구에서 미뇽을 “누이 코르넬리아에 대한 괴테의 기억과 공상의 산물”(Eissler 1985, 875)로 간주한다. 토마스 W. 크니셰는 프로이트에 기대어 미뇽이 “탑의 모임이 단지 육체로서만 보존할 수 있을 뿐, 이를 통해 실제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즉 이성애적인 커플에 대한 위협의 기표”(Kniesche 1993, 75)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헬무트 암머란은 미뇽을 “빌헬름의 몽상적이고 직관적인 잠재의식의 상징”으로 보며 그녀의 본질을 “시적인 마리오네트”(Ammerlahn 2003, 101/100)로 밝혀낸다.⁵⁾ 이와 비슷하게 모니카 픽은 미뇽을 빌헬름의 수호신 내지 정령으로 본다.(Vgl. Fick 1987, 83-99) 하네로레 쉼라퍼는 마이스터 소설에 대한 신화적이고 도상학적인 해석에서 당시에 확립된 독법, 즉 이 두 소설에서 오성과 경제의 승리를 확인하는 독법을 반대로 뒤집는다. 즉, 쉼라퍼에 따르면 “숨겨진 신화적 이미지들 속에서 마침내 시문학이 산문에 대해 승리를 거둔다.”(Schlaffer 1980, 5) 이때 미뇽과 하프 악사는 예술 내지 시적인 세계의 두 대표자로서 쉼라퍼 해석의 중심을 이룬다. 마티아스 마이어는 미뇽의 시적인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미뇽이 어떠한 시문학 구상을 대변하는지를 묻는다. 마이어는 미뇽을 “철저히 시학적인 인물”(Mayer 1989, 71)로 간주하며 그녀의 몰락과 그녀가 소설 속의 세계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을 일종의 시학적 발언으로 파악한다. 미뇽은 직접성과 서정시적인 자기토로를 표방하는 자연시문학의 수호신이며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직접적인 자연성의 시학에 대한 괴테의 거부라는 것이다. 프란치스카 쇠슬러는 마이스터 소설에 대한 문화사적인 연구에서 미뇽과 하프 악사가 “경제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사회가 배제하게 될 것”(Schöbller 2002, 78), 즉 천재시학, 종교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 숙명론적 사고를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 요헨 회리쉬는 그의 후기구조주의적인 연구에서 『수업시대』가 미뇽과 하프 악사와 같이 상징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인물들을 희생시키기 때문

5) 암머란에 따르면 미뇽은 “결정론적으로 운명에 빠진 상태, 생명에 적대적인, 생명을 소진시키는 그리움,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적인 동경, 고독과 외로움, 순전히 주관적인 예술가 정신, 성향의 강요, 베르터적인 감정의 과잉, ‘불균형의 광기’”(Ammerlahn 2003, 97)를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에 “완전히 비인간적인, 심지어 반인간적인 소설”(Hörisch 1983, 77)⁶⁾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국내의 선행연구 중에서 미봉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임홍배는 미봉의 비극이 “문명화 과정 자체의 내적 모순”(임홍배 1996, 55)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상의 삶에서 충족될 수 없는 동경을 숙명으로 타고난 낭만적 영혼의 비극”이자 “편협한 합리주의 정신의 계몽적 훈육이 야기한 사회적 비극”(임홍배 2014, 162/163)이라고 분석한다. 오순희는 미봉의 양성적 특징이 “근대적 젠더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모든 타자들을 아우르는 기호”이며 그녀의 죽음은 “성찰에 근거하는 젠더질서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는지를 성찰해보도록 촉구하는 문학적 장치”(오순희 2014, 120)라고 본다.

이상의 연구사 개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봉은 지금까지 단연 상징적 차원이거나 시학적 차원에서 빈번히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미봉은 상징적인 인물로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인물로서도 고유한 함의와 논쟁점을 지니고 있다. 소설 내에서 미봉에 대한 묘사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그녀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녀가 지닌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많은 비밀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미봉을 허구적 현실 속에서 생동하는 인물로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그녀 정신의 내적 논리, 그녀의 사랑과 감각적 욕망 및 병의 발달과정에 주목한다. 무엇이 미봉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본고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미봉의 죽음이 지니는 상징적, 시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졌으므로⁷⁾ 여기에서는 소설줄거리 내에서 그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연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이에 답하기 위해 미봉이 걸어간 삶의 도정을 텍스트에 밀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한다. 우선 유괴와 학대 같은 미봉이 소설에 등장하는 시점에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그 정신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

6) 괴테의 소설은 두 시적인 인물을 희생시키기는 하지만 불행한 운명과 때 이른 죽음을 통해 이들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든다. 회리쉬는 미봉과 하프 악사가 탐의 모임의 교육적 조치에 희생된다고 보는데 소설에서 탐의 모임과 그 구성원들을 묘사할 때 아이러니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반인간적”이라는 수식어는 극단적이다.

7) 위에서 설명한 해석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봉의 죽음은 하네로레 술라퍼의 표현을 빌려 산문적인 세계 속에서 시적인 세계가 몰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미봉은 시문학의 화신으로서 산문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고 다음으로 어떻게 자신의 구원자 빌헬름에 대한 사랑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다시금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지, 그리고 정신적 상처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미논의 트라우마적인 체험이 어떻게 서술적으로 재현되는지를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그녀가 트라우마의 재발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II. 유년기 트라우마 - 유괴와 학대

빌헬름은 미논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 날, 그녀가 학대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 비밀스러운 아이를 구해낸다.

빌헬름은 무슨 일인가 보기 위해 그쪽으로 뛰어갔다.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놀랍게도 그는 줄타기 곡예단의 단장이 그 인상적인 아이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짐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애쓰면서 채찍으로 그 자그마한 몸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⁸⁾

어린 소녀가 공적인 장소에서 구경꾼들 앞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얻어맞는 데에도 불구하고 빌헬름이 나서기 전까지 아무도 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장면에서 독자들은 트라우마의 순간을 목격한다. 빌헬름이 “성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으로 mit einer Gewalt, die nur der Zorn geben kann”(456) 폭력적인 곡예단 단장을 공격하자 그는 결국 아이를 놓아준다. 그의 사나운 욕설은 미논의 비참한 상황을 분명히 드러낸다. 미논은 단장이 봤을 때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때려죽일 totschiagen” 수 있는 “게을러빠지고 아무 짝

8) “Wilhelm sprang hinüber, um zu sehen, was es sei, und mit Entsetzen erblickte er, als er sich durch’s Volk drängte, den Herrn der Seiltänzer-gesellschaft, der das interessante Kind bei den Haaren aus dem Hause zu schleppen bemüht war, und mit einem Peitschenstiel unbarmherzig auf den kleinen Körper losschlug.”(455 f./1권 156쪽) 별행 인용의 경우 원문 출처 뒤에 두 권으로 이루어진 번역본의 권수와 쪽수를 함께 표기한다. (고테 1999 참조) 작품인용은 대체로 위 번역서의 번역을 따르되 부분적인 수정을 가했음을 밝혀둔다.

에도 쓸모없는 것 die faule unnütze Kreatur”(456)일 뿐이다. 빌헬름이 단장에게 그가 이 아이를 유괴했으리라는 의심을 내비치자 그는 은화 삼십 냥을 받고 미농을 빌헬름에게 넘긴다. 빌헬름에게 구출된 이후 종적이 묘연하던 미농은 줄타기 곡예단이 도시를 완전히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거의 불의 살갓이 벗겨질 만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뺨의 연지를 지우려고 die Schminke von ihren Wangen auf alle Weise los zu werden”(460) 애쓴다. 이러한 노력은 줄타기 곡예단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적인 과거를 기억에서 지우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미농의 입이 “나이에 비해 너무 꼭 다문 für ihr Alter zu sehr geschlossen“ (451) 것처럼 보인다는 빌헬름의 첫인상은 실제에 부합한다. 미농은 소설 전체에서 극히 적게 말하며 그녀의 내면은 노래와 시 및 행동 속에 표현된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보호자 빌헬름에게조차 속마음을 완전히 터놓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과거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미농에게 비밀스런 아우라를 부여하는 이러한 침묵은 어떤 맹세와 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첫 암시는 5권 마지막 장에 삽입된 그녀의 시에 나타난다. 이 시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런 태도가 어떤 맹세와 연관이 있으며 이 맹세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내 입술만은 맹세로 굳게 닫혀 / 신이 아니면 열 수 없어요.”⁹⁾

독자들은 소설의 끝부분에 가서야 미농이 줄타기 곡예단에 의해 유괴되었으며 당시 어떤 맹세를 했음을 알게 된다. 유괴로 인한 트라우마는 이후 소녀의 삶과 성격을 결정짓는다.

그 아이[미농]는 밀라노 근방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매우 어린 나이에 줄타기 광대들의 곡예단에 유괴되어 부모 곁을 떠나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애한테서 더 자세한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지명이나 인명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까닭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살아 있는 인간에게는 아무한테도 자기 집 주소와 부모의 내력에 관해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이지요. 미농이 그런 맹세를 하게 된 이유인즉,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아이가 집 주소를 아주 또박또박 말해 주고 제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토록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그들은 그럴수록 더

9) “Al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ßen.”(726 f.)

황급히 아이를 끌고 그곳을 떠나버리고는 밤이 되자 숙소에서 아이가 자는 줄 알고 근사한 사냥을 했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이가 돌아가는 길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서로 다짐했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그 불쌍한 아이 한테는 무서운 절망감이 덮쳤는데, 그러던 가운데에 마침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그 아이를 맡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도 혼자 속으로, 앞으로 아무도 더 이상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기의 내력을 이야기하지 않겠으며 직접적인 하느님의 가호를 기대하며 살고 또 죽겠다고 신성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¹⁰⁾

여기에서 우리는 트라우마의 결정적인 한 계기를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기대하는 어른들이 아이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유괴함으로써 아이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신뢰가 동요한다. 이러한 충격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무력감과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독감을 비롯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희생되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트라우마 경험의 중요한 요소이다.(Vgl. Barwinski 2008, 32) 트라우마적인 순간에 느낀 “무서운 절망감”은 보호하는 개입에 대한 소망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그 아이를 맡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환상은 최근의 트라우마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적인 기억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아이의 발달단계와 이전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10) Sie [Mignon] mag in der Gegend von Mailand zu Hause sein, und ist in sehr früher Jugend, durch eine Gesellschaft Seiltänzer, ihren Eltern entführt worden. Näheres kann man von ihr nicht erfahren, teils weil sie zu jung war, um Ort und Namen genau angeben zu können, besonders aber, weil sie einen Schwur getan hat, keinem lebendigen Menschen ihre Wohnung und Herkunft näher zu bezeichnen. Denn eben jene Leute, die sie in der Irre fanden, und denen sie ihre Wohnung so genau beschrieb, mit so dringenden Bitten sie nach Hause zu führen, nahmen sie nur desto eiliger mit sich fort, und scherzten Nachts in der Herberge, da sie glaubten das Kind schlafes schon, über den guten Fang, und beteuerten, daß es den Weg zurück nicht wieder finden sollte. Da überfiel das arme Geschöpf eine gräßliche Verzweiflung, in der ihm zuletzt die Mutter Gottes erschien, und ihm versicherte, daß sie sich seiner annehmen wolle. Es schwur darauf bei sich selbst einen heiligen Eid, daß sie künftig niemand mehr vertrauen, niemand ihre Geschichte erzählen und in der Hoffnung einer unmittelbaren göttlichen Hülfe leben und sterben wolle.(902/2권 286-287쪽)

된다.(Vgl. Pynoos 2000, 280/284) 미농은 유괴당하기 전에 가톨릭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그녀의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가 이러한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괴라는 트라우마적 상황으로 인해 미농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바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제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종의 보상적 구도를 세운 것이다. ‘신뢰와 솔직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아무에게도 내 얘기를 들려주어서는 안 돼.’ 미농의 집요한 폐쇄성은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입장이 성모 마리아 앞에서 한 “신성한 맹세”의 형태를 띠므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구원자이자 보호자인 빌헬름 앞에서조차 자신의 맹세를 깰 수가 없는 것이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유괴로 인한 트라우마가 밝혀짐으로써 고향에 대한 미농의 깊은 그리움이 설명된다. 레몬꽃 피는 나라에 대한 그녀의 간절한 동경이 표현된 저 유명한 이탈리아 노래에는 그녀가 지닌 트라우마의 몇 가지 측면이 드러난다. “대리석 입상들이 날 바라보면서/ ‘가엾은 아이야, 무슨 몹쓸 일을 당했느냐?’고 물어주는 곳”¹¹⁾ - 유괴당한 아이는 고향에서 늘 바라보던 친숙한 대리석 조각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환상 속에서 위로를 구한다. 이 노래의 3연에서 묘사하는 “그 산과 그 산속의 구름다리 den Berg und seinen Wolkensteg”(503)는 미농이 길을 잃고 헤매다 유괴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산악풍경은 트라우마의 순간처럼 매우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하다. “노새가 안개 속에서 제 갈 길을 찾고 있고/ 동굴 속에선 해묵은 용들이 살고 있으며/ 무너져 내리는 바위 위로는 다시 폭포수 쏟아져 내리는 곳”¹²⁾.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시가 빌헬름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독창적인 말투는 다만 비슷하게 흉내나 낼 수 있을 따름이었다. 더듬는 듯한 말씨를 뜻이 통하도록 가다듬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연결시켜 놓는 동안에, 그만 어린애다운 천진난만한 표현이 사라지고 말았다.”(강조 필자)¹³⁾ 서술자의 이러한 설명은 미농의 트라우마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an/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tan?”(503)

12) “Das Maultier sucht im Nebel seinen Weg,/ In Höhlen wohnt der Drachen alte Brut,/ Es stür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Flut.”(503)

는 점을 암시한다. 즉 유년기 트라우마는 앞뒤가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이러한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적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그 결과로 혼란스러운 서술 구조(“서로 관계가 없는 것”)를 갖게 된다. 앞뒤가 맞게 서술하는 능력은 그 밖의 다른 언어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 아이들이 나중에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여타의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달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Vgl. Pynoos 2000, 277) 발달심리학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논의 부족한 언어능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녀는 “서투른 독일어로 in einem gebrochenen Deutsch”(451) 말하며 “지칠 줄 모르고 unermüdet” 글씨 쓰는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글씨는 고르지 않았고 선들은 뺨뺨뺨했다 Buchstaben blieben ungleich, und die Linien krumm”(490)¹⁴⁾ 게다가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의사소통할 수도 없다. 미논과 같은 시문학의 아이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서투르다는 점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미논의 자기표현수단, 즉 노래, 시, 음악, 춤은 “시문학의 고대적 형태, 문자의 매개에 의존하지 않는 구술성의 자연시문학”(Mayer 1989, 74)을 대표한다. 즉 그녀는 단지 직접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언어만을 구사할 수 있을 뿐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는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

그러나 미논의 언어발달지체는 그녀의 트라우마 탓만은 아니며 그녀가 타고난 성향과도 연관이 있다. 소설의 끝부분에 삽입된 미논의 가족사에는 그녀의 “특이

13) “Aber die Originalität der Wendungen konnte er nur von ferne nachahmen. Die kindliche Unschuld des Ausdrucks verschwand, indem die gebrochene Sprache übereinstimmend und **das Unzusammenhängende verbunden ward.**”(504)

14) 이런 의미에서도 “두 예술가적 주체[미논과 하프 악사]는 문자문화에 순응할 수 없다”는 하네로레 슈라퍼의 테제는 타당하다.(Vgl. Schlaffer 1980, 49) 그러나 글씨 쓰는 것을 배워야 하고 교양을 쌓아야 하는 의무가 미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슈라퍼의 테제는(Vgl. Schlaffer 1980, 65)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논은 처음부터 아무런 외적 강제 없이 글씨 쓰기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다음 대목을 참조. “그 아이는 얼마 전부터 자기가 외울 줄 아는 모든 것을 글로 쓰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주인이자 친구인 빌헬름에게 자기가 적은 것을 고쳐달라고 내밀곤 하였다. Das Kind hatte sich eine Zeit her mit großem Fleiße bemüht, alles, was es auswendig wußte, zu schreiben, und hatte seinem Herrn und Freund das Geschriebene zu korrigieren gegeben.”(489 f.)

한 성향 eine sonderbare Natur”(968), 즉 신체적 날렵함과 음악적 소질 및 언어적 서투름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다.¹⁵⁾ 요컨대 미농의 언어능력결핍은 그녀가 타고난 성향이기도 하지만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상황도, 즉 독일어는 미농의 모국어가 아니며 밀라노 지역 출신인 미농이 유괴당한 이후에 떠돌이 줄타기 곡예단에서 자랐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녀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가 뒤섞인 서투른 독일어 eingebrochnes mit französisch und italienisch durchflochtenes Deutsch”(463)를 구사하는 것은 이런 정황에서 비롯된다.

III. 정신적 고통의 육체적 증상화

빌헬름이 미농에게 가지는 의미는 구원자이자 보호자에서 아버지를 거쳐 연인으로 발전한다. 맨 처음 미농은 빌헬름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식하며 그를 주인님으로 세심하게 섬긴다. 미농은 빌헬름 앞에서 달걀춤을 추어 보임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녀가 줄타기 곡예단 단장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언어맞았던 것은 관객들 앞에서 이 춤을 추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빌헬름이 백작의 성에서 자신이 구상한 연극 무대에서 이 달걀춤을 취달라고 부탁할 때에도 미농은 이를 거절한다. 미농이 빌헬름을 만난 이래로 오직 그에게만 이 춤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이 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암시한다. 빌헬름이 달걀춤에서 미농의 성격을 알아보듯(Vgl. 469) 이 춤은 그녀의 자기표현이며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구원자에게만 자신의 내면을 열어보

15) 미농의 부족한 언어능력은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농의 생모 스페라타는 그녀를 돌봐주던 신부의 영향으로 출산 직후부터 죄의식에 시달리며 모성애와 아이에 대한 혐오감 사이에서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녀간에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미농은 생모와 떨어져서 양부도 밑에서 자라게 된다. 대개 어머니인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은 언어습득을 포함한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어떤 때는 아이를 달래고 보호하고 어떤 때는 아이를 내치는 식으로 일관성 없게 행동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확실하고 양가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의사표현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생모와의 약한 애착관계가 미농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유아의 언어습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Vgl. Klann-Delius 2008, 180 f.)

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농이 무대를 거부하는 것은 트라우마와도 연관이 있다. 그녀에게는 폭력적으로 춤 공연을 강요받은 것 자체가 트라우마이므로 그녀는 “더 이상은 무대 위에 서지 않으려 nicht mehr auf das Theater gehen” (532) 한다. 회피는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을 회피하려 한다.(Vgl. Fischer/Riedesser 2003, 45) 미농은 자신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대와의 접촉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농이 빌헬름에게도 무대를 떠나라고 부탁하는 것이나 나중에 그가 제를로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할 때 그의 손을 끌어당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⁶⁾

미농의 첫 번째 심장발작은 그녀와 빌헬름 사이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둘 사이에는 다정한 부모자식관계가 형성된다. 미농은 빌헬름이 연극배우들의 모임을 떠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즉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원자가 자기를 떠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첫 번째 심장발작을 일으킨다.¹⁷⁾ 이 발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미농에게 이러한 발작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 심장발작을 겪는 날 미농은 빌헬름이 자신의 글씨쓰기연습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슬퍼한다. “그녀는 그가 오늘 낮에 그녀를 그렇게 통명스럽게 대했던 사실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497) 정신적 상처를 입은 이후의 이 시기에 그녀는 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트라우마적인 사건 이후 아이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정도까지 불안에서 비롯된 애착을 보인다.(Vgl. Pynoos 2000, 276) 이러한 미

16) 모니카 픽은 빌헬름으로 하여금 연극을 멀리하게 하려는 미농의 시도를 순전한 내면성의 인물인 미농이 빌헬름의 주의를 외화의 형식인 연극으로부터 단 데로 돌리려는 것으로 해석한다.(Vgl. Fick 1987, 179 f.) 마티아스 마이어도 미농이 연극무대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즉 미농으로 대표되는 주관적이고 순수한,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자기표현의 시문학에 비해서 사회적 제도로서의 연극은 예술과 경제 사이의 타협, 즉 비교적 순수하지 못한 시문학이라는 것이다.(Vgl. Mayer 1989, 61)

17) 이 발작장면은 흔히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장면은 “오르가슴을 느끼는 소녀에 대한 훌륭한 묘사”로 읽혔으며 미농이 나중에 겪는 심장발작은 심지어 나탈리에를 상대로 한 “유혹 시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농의 발작을 종종 정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 관상동맥의 협착에 따른 협심증으로 보는 의학자의 진단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Vgl. Eissler 1985, 878; Kniesche 1993, 75; Nager 1992, 146)

농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의 감정이 이해된다. 미뇽의 유일한 보호자 빌헬름은 이 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녀에게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이유 없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이 도시에 머물렀음을 깨닫고 매우 불안하고 날카로운 상태를 보인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끌리는 마음과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며 필리네를 둘러싼 질투심에 괴로워한다. 보호자의 불안은 아이의 불안을 키운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인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주인님께서 불행하시면 미뇽은 무엇이 돼야 하나요?” — “애야!” 하고 그가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도 내가 괴로워하는 걱정거리 중의 하나야. 난 떠나야 하거든.” 그녀는 억누른 눈물에 젖어 빛나는 그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황급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¹⁸⁾

미뇽은 바로 이 순간에 심장발작을 일으킨다. 빌헬름과 떨어지는 것은 미뇽에게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다시 트라우마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녀의 구원자이자 보호자이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빌헬름이 갑자기 그녀를 떠난다면, 그녀는 다시금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될 것이며 다시 나쁜 어른들의 손아귀에 떨어져 이전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버림받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미뇽을 극심한 절망에 빠뜨려 그녀는 심장발작의 형태로 나타나는 쇼크를 겪게 된다. 최근의 트라우마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와 육체적 증상화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말문이 막히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손상되면 감정은 이제 단지 신체적인 기능 이상의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Vgl. van der Kolk 2000b, 181 f.) 즉 미뇽의 발작은 심신상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미뇽이 두 번째 심장발작 때는 밤새 “무서운 경련 *entsetzliche Zuckungen*”을 일으키고 마지막 발작 때는 죽는 데에 반해 첫 발작 때는 빌헬름의 위로 덕분에 비교적

18) “Sie [Mignon] stand vor ihm [Wilhelm], und sah seine Unruhe. — Herr! rief sie aus, wenn du unglücklich bist, was soll Mignon werden? — Liebes Geschöpf, sagte er, indem er ihre Hände nahm, du bist auch mit unter meinen Schmerzen. — Ich muß fort. — Sie sah ihm in die Augen, die von verhaltenen Tränen blinkten, und kniete mit Heftigkeit vor ihm nieder.”(497/1권 215쪽)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빌헬름이 미뇽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자 그녀의 발작은 가라앉는다. 미뇽을 자기 옆에 둘 것이라는 빌헬름의 약속은 그녀의 심리적 안정과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 “아버지 Vater”와 “아이 Kind”라는 새로운 호칭과 이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는 불안한 이 아이에게 자신의 보호자와 보다 깊이 결속되었다는 느낌을 안겨준다.

미뇽은 양아버지 빌헬름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며 그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떼에 맞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도 팔을 다쳤으면서도 부상당한 빌헬름을 극진히 간호한다. 그러는 사이 미뇽의 내면에서는 차츰 감각적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다. 빌헬름이 내적 위기를 겪는 동안 이와 나란히 미뇽의 사춘기가 시작된다. 빌헬름과의 신체접촉은 점점 더 친밀하고 격렬해지고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¹⁹⁾

미뇽의 자라나는 감각적 욕망은 『햄릿』 초연의 밤에 그 절정에 달한다. 공연이 끝난 후 만찬에서 미뇽은 뜻하지 않게 달콤한 와인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디오니소스적인 도취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만큼 신명이 나서 ausgelassen, wie man sie niemals gesehen”(694) 까불고 “마이나데스 eine[] Mänade”(695)처럼 춤을 춘다. 만찬이 파한 후 미뇽은 기묘한 행동을 보인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빌헬름은] 누구에게든 왼팔을 붙잡혔다는 느낌과 동시에 거기에 매우 심한 통증을 느꼈다. 미뇽이 숨어 있다가 그를 붙잡고는 그의 팔을 깨문 것이었다.”²⁰⁾ 이 대목에서는 황홀경에 빠져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나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남성들을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마이나데스의 이미지가 언뜻 비친다. 깨무는 행동은 이 소녀의 무의식적인 감각적 욕망을 암시하며²¹⁾ 그 다음 단계를 예고한다. 그러나 미뇽의 이야기가

19) 다음 대목을 참조 “그녀가 오갈 때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할 때면, 그녀는 그를 두 팔로 꼭 껴안고 아주 열렬하게 키스했는데, 이 싹트기 시작하는 소녀의 걱정이 그에게는 가끔 걱정스럽고 불안하게 생각되곤 하였다. 그녀의 행동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활기가 날로 더해 가는 것 같았으며, 그녀의 온 심신이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626)

20) “In dem Augenblicke fühlte er [Wilhelm] sich am linken Arme ergriffen und zugleich einen sehr heftigen Schmerz. Mignon hatte sich versteckt gehabt, hatte ihn angefaßt und ihn in den Arm gebissen.”(696)

21) 미뇽의 행동은 클라이스트의 펜테질레아를 연상시킨다. „So war es ein Versehen. Küsse, Bisse,/ Das reimt sich, und wer recht von Herzen liebt,/ Kann schon das eine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독자들은 소설의 마지막 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나탈리에와 의사가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미농은 이날 밤 몰래 빌헬름에게 숨어들려고 했다. 미농은 사랑의 밤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가벼운 톤으로 묘사하는 필리네의 노래를 듣고서 연인과 함께 보내는 밤을 꿈꾼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빌헬름과 함께 하는 “친밀하고 행복한 휴식 eine vertrauliche, glückliche Ruhe”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녀가 느낀 “어떤 내밀한 전율 ein heimlicher Schauer”(903)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과 달리 “한 연적이 자기보다 먼저 eine Nebenbuhlerin ihr zuvor”(903) 빌헬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미농은 두 번째 심장발작의 고통을 겪는다. 슈테판 블레신은 그녀의 상태에 대한 묘사에서 “트라우마의 발생 die Entstehung eines Traumas”(Blessin 1996, 171)을 본 것은 타당하다. 의사는 미농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미농은 굉장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불같은 질투가 몰고 오는 온갖 격렬한 감정이 희미한 정욕이 불러일으키는 알지 못할 욕망과 뒤섞였으며, 이런 격렬한 감정으로 아직 못다 핀 그 꽃봉오리는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움과 기대로 생생하게 뛰고 있던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멎는 것 같았고, 마치 하나의 납덩이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노인의 하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붕 밑 방으로 달려가 그의 발치에서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그날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²²⁾

이러한 묘사는 미농의 심장발작이 심신상관적이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다. “불같은 질투가 몰고 오는 온갖 격렬한 감정”과 “희미한 정욕이 불러일으키는

für das andere greifen.“(Kleist 2008, 425)

22) “Mignon empfand unerhörte Qual, alle die heftigen Empfindungen einer leidenschaftlichen Eifersucht mischten sich zu dem unerkannten Verlangen einer dunklen Begierde, und griffen die halb entwickelte Natur gewaltsam an. Ihr Herz, das bisher vor Sehnsucht und Erwartung lebhaft geschlagen hatte, fing auf einmal an zu stocken, und drückte, wie eine bleierne Last, ihren Busen, sie konnte nicht zu Atem kommen, sie wußte sich nicht zu helfen, sie hörte die Harfe des Alten, eilte zu ihm unter das Dach, und brachte die Nacht zu seinen Füßen unter entsetzlichen Zuckungen hin.”(904/2권 289쪽)

알지 못할 욕망”이 경련을 유발한다. 자신의 연적이 앞질러 들어간 빌헬름 방의 “커다란 빗장이 걸리는 소리”(904)를 듣는 순간 이미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이 소녀에게는 다시금 정신적 충격이 가해진다. 미농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능력이 없다. 그녀는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으며 과도한 정신적 타격은 심장발작이라는 육체적 증상으로 표출된다. 이날 밤부터 그녀는 시름시름 앓는다. 미농의 상태는 강렬한 감정적 동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력감, 병을 유발하는 지속적 영향과 같은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Vgl. Fischer/Riedesser 2003, 78-91)

미농에게 이러한 쓰라린 좌절의 경험은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연인을 단념한다. 『햄릿』 초연 다음날 아침 빌헬름과 미농이 만나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빌헬름의 시선을 빌려 미농의 성숙을 암시한다. 하룻밤 사이 미농은 “더 성장한 것 같이 größer geworden zu sein” 보이고 “고상하고 우아한 몸가짐 hohen edlen Anstand”(697)을 갖게 된다. 그녀는 무언가를 묻는 듯한 시선으로 진지하게 빌헬름을 응시하며 이전까지 그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격렬하게 애정표현을 하던 것과 달리 갑자기 빌헬름과의 신체접촉을 피한다. 이날 밤 배우들의 숙소에 화재가 일어날 때 미농은 새로운 호칭으로 빌헬름을 부르는데 — “마이스터 씨, 당신의 펠릭스를 구하세요! Meister! rette deinen Felix!”(699) — 이는 이제 빌헬름이 그녀에게 가지는 의미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펠릭스가 빌헬름의 아들임을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미농은 빌헬름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의 친아들에게 아이의 자리를 내어준다. 이 순간부터 펠릭스는 빌헬름에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 ‘마이스터 씨’라는 호칭을 씌으로써 미농은 한편으로는 아이 역할을 포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연인과 동렬에 놓는다. 그녀는 빌헬름의 연인이 되는 대신에 바로 그의 아이의 어머니 역할로 들어간다. 미농은 빌헬름에게 펠릭스의 생모인 마리아네의 유품을 달라고 해서 받음으로써 상징적으로도 펠릭스의 어머니 역할을 맡는다. 빌헬름이 아우렐리에의 유서를 전하기 위해 로타리오에게 다녀오는 사이 미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창백해지고 마른 viel blässer und magerer”(851) 상태가 된다. 상대방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충족되지 않은 사랑이 소녀의 생명을 쪼먹은 것이다.²³⁾ 빌헬름이 로타리오가 제안한 대로 미농은 테레제에게 보내고 펠릭스는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미농에게 닥친 변화를 설

명하자 미농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마이스터 씨!”하고 미농이 말했다. “저를 계속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것이 저의 건강에 좋을 거예요, 괴롭기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계속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무슨 초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타일러 설명하였다. “제 교양은 이 정도로 충분한걸요.”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사랑하고 슬퍼할 만큼은 알게 됐거든요.”²⁴⁾

이 대화에는 빌헬름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미농의 강한 소망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미농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가 비록 연인으로서의 그는 단념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을 필요로 한다. 교양에 대한 그녀의 자기발언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농은 자기가 빌헬름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슬퍼할 만큼은 교양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농의 발언은 교양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가 아니라²⁵⁾ 무슨 일이 있어도 빌헬름 곁에 머물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빌헬름의 계속되는 설득시도에 미농은 절망적으로 묻는다. “저를 곁에 두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Du willst mich nicht bei Dir?”(867) 미농은 그럼 대신 끔찍한 순간마다 자기 곁에 있어준 하프 악사에게 가겠다고 말한다. 만일 길만 알았다면 벌써 그에게 갔을 거라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지금도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빌헬름은 이러한 구조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는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미농은 “아주 이성적인 아이 so ein vernünftiges Kind”(867)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라줄 것으로

23) 다음 대목을 참조 “미농은 자유로운 공기와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착한 아이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좀체 완쾌되지 않았다.”(863)

24) “Meister! sagte sie [Mignon], behalte mich bei Dir, es wird mir wohl tun und weh. Er stellte ihr vor, daß sie nun heran gewachsen sei, und daß doch etwas für ihre weitere Bildung getan werden müsse; – ich bin gebildet genug, versetzte sie, um zu lieben und zu trauern.”(866 f./2권 228쪽)

25) 이 소설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은 단지 교양개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잊힌다는 하인츠 쉐라퍼의 견해는 첫째, 그들이 실제로는 교양개념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이 두 시적 인물은 그들의 이른 죽음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이던, 조화를 강조하는 독법에 반론을 편 쉐라퍼의 해석은 대체로 수긍할 만하며 그 나름의 공이 있다.(Vgl. Schlaffer 1978, 219)

믿는다고 말한다. “이성은 잔인하고 마음이 더 낫다 Die Vernunft ist grausam [...] das Herz ist besser”(867)는 미농의 유명한 말은 이러한 빌헬름의 설득 시도에 대한 절망적인 반응인 동시에 그의 규정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즉 미농은 이성적인 아이이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자기 보호자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녀는 다만 ‘펠릭스와 함께’라는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 미농에게는 이제 펠릭스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버팀목이다.²⁶⁾ 미농이 펠릭스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 빌헬름은 두 아이를 함께 테레제에게 보내지만 나중에 펠릭스 혼자 빌헬름의 입단식에 나타나는데 미농에게서 펠릭스를 떼어놓은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저에게 이 아이를 다시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저에게서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때 이래로 저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시다. 제 마음이 이 지상에서 아직도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한, 이 애가 그 틈을 채워줄 거예요.”²⁷⁾ 펠릭스와 떨어짐으로써 미농은 이 시기에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을 빼앗겼던 셈이다.

IV. 트라우마적 경험의 서술불가능성

미농의 이야기가 어떻게 서술되는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인생과 고통이 담긴 이야기는 제삼자인 나탈리에에 의해 재구성된 후 다시금 매개를 거쳐, 즉 나탈리에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에 의해 서술된다. 이는 나탈리에가 빌헬름을 배려해서 자리를 피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미농과 관련된 민감한 화제를 꺼내 혹시라도 자기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빌헬름과 의사가 편하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뜬다.²⁸⁾

26) 펠릭스에 대한 미농의 사랑은 멜리나 부인의 다음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여자들이란 특이해서, 비록 아이 엄마를 모르거나 그 엄마를 원수처럼 미워하더라도, 연인의 아이들만은 정말 진정으로 귀여워하는 법이죠.”(863)

27) “ich danke Dir [Wilhelm], daß du mir das Kind wieder bringst, sie hatten ihn Gott weiß wie entführt, und ich konnte nicht leben zeither. So lange mein Herz auf der Erde noch was bedarf, soll dieser die Lücke ausfüllen.”(905/2권 292쪽)

미농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질문에 그녀가 내놓는 대답과 그녀가 부르는 노래에는 그녀의 삶의 편린들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미농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미농을 맡기 이전부터 몇 명의 어린 소녀들을 돌보던 나탈리에가 양육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맡는다. 빌헬름과의 대화에서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조차도 그녀는 나탈리에에게 명확히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귀한 아가씨가 아이의 산발적인 말이나 노래들에서, 그리고 애써 감추고 싶은 것을 도리어 노출시키곤 하는 어린아이다운 부주의한 언행들을 듣고 본 데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합니다.²⁹⁾

나탈리에에 마치 고고학자가 작업하듯 파편들로부터, 즉 “산발적인 말이나 노래들에서, 어린아이다운 부주의한 언행들을 듣고 본 데서” 미농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미농의 유년기와 유괴당한 경험뿐만 아니라 빌헬름에 대해 품고 있는 비밀스런 사랑까지 밝혀낸다. 나탈리에가 밝혀낸 것은 의사에 의해 “진단, 병인, 경과, 치료계획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병자에 대한 이야기로”(Käser 1998, 42 f.) 재구성된다. 의사는 미농의 일생을 요약하고 그녀의 병을 진단하고 그녀의 인생에서 어떤 한 사건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평가하고 빌헬름이 미농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지시를 내린다. 그는 예컨대 「헵릿」 초연의 밤에 미농이 겪은 트라우마적인 체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 사건이 “이 착한 아이의 생사에 결정적 für Tod und Leben dieses guten Geschöpfs entscheidend”(902)이라는 것이다.

미농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매개되어 전달된다는 점은 그녀의 내면이 지닌 접근불가능성과 폐쇄성, 즉 그녀의 트라우마를 암시한다. 미농과 같이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

28) 다음 대목을 참조. “나탈리에에 우리가 보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나 역시 모두 나탈리에 자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도 그녀의 면전에서는 아무래도 아주 서슴없이 말하기가 좀 거북하거든요.”(901/2권 286쪽)

29) “Selbst dieses, was ich Ihnen hier erzähle, hat sie [Mignon] Natalien nicht ausdrücklich vertraut; unsere werthe Freundin hat es aus einzelnen Äußerungen, aus Liedern und kindlichen Unbesonnenheiten, die gerade das verraten, was sie verschweigen wollen, zusammen gebaut.(902/2권 287쪽)

에게 자신의 트라우마적인 체험을 서술적으로 앞뒤가 맞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괴테의 텍스트에서 심각한 영혼의 상처가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읽을 수 있다. 괴테의 문학적 서술은 최근의 의학적 연구 성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현대의 트라우마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은 어린 시절에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의 결과로 보다 원시적인, 즉 몸의 감각과 관련되거나 감정과 연관된 기억 형식에 고정되어 그 이후의 발달과정에서 자전적-에피소드적인, 즉 서술적 기억 형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Vgl. Scheidt/Waller 2006, 61)³⁰⁾ 트라우마적인 체험의 서술불가능성은 따라서 기억을 회피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는 태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서술적 구조의 결여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Vgl. Kolk 2000a, 223 f./229 ff.)

의사는 자신과 나탈리에가 미논의 이야기를 함께 재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강조한다.

“당신은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나한테서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들으실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야 할 겁니다”하고 의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절실하다고는 하기 어려운 나탈리에와 제가 그 착한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일념에서 그 애의 혼란스러운 상태의 본질을 명확히 통찰할 수 있기까지는 적지 않게 애를 먹었거든요.”³¹⁾

나탈리에와 의사가 미논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은 이 소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신적으로 거의 극복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자전적 기억 속에 거의 통합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30)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동작, 감정, 인지 등과 관련된 개별적인 내용들을 서술적으로 구조화된 자전적 기억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마의 기능이다. 그런데 트라우마의 순간에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원인에 주의가 집중되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과도한 감정적 흥분상태로 인해 해마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이차적 정보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트라우마적인 기억은 처음에는 언어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감각적 파편들의 형태로 저장된다.

31) “Sein Sie froh, sagte der Arzt, daß Sie diese Resultate so schnell von mir erfahren können. Natalie und ich, die wir doch nur einen entfernten Anteil nehmen, wir waren genug gequält, bis wir den verworrenen Zustand dieses guten Wesens, dem wir zu helfen wünschten, nur so deutlich einsehen konnten.”(903/2권 288쪽)

마치 탐정처럼 여기저기 훑뿌려진 단서들을 조합해서 고생스럽게 서술적 인과관계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들은 미농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 즉 트라우마적인 계기들을 밝혀냄으로써 결국 이러한 작업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들의 개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미농은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세가 악화된다.

V. 트라우마의 재발 Retraumatisierung

나탈리에의 질문이 미농으로 하여금 트라우마의 순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자 미농은 트라우마의 순간과 똑같은 상태를 경험한다.

“나탈리에가 저[의사]에게 고백하기를,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의 상태를 볼 때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참담한 심경을 느껴보기는 평생 처음이라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그 고귀한 성품의 아가씨는 자기가 캐물어서 그 고백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억을 통해 그 착한 아이의 생생한 고통을 그토록 잔인하게 되살려 놓은 데 대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탈리에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착한 아이는 이런 얘기를 — 아니, 제가 **자꾸 캐어묻는 데 대해** 이런 대답을 — 하던 중, 이 대목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저의 앞에 엎어지면서 **한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는 그 끔찍한 날 밤의 고통이 다시 찾아왔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 아이는 마치 지렁이처럼 몸을 비비꼬면서 바닥 위를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³²⁾ [강조: 필자]

32) “Der Arzt hielt einen Augenblick inne, und da Wilhelm stille schwieg, fuhr er fort: Natalie hat mir versichert, es habe sie in ihrem Leben nichts so erschreckt und angegriffen, als der Zustand des Kindes bei dieser Erzählung; ja unsere edle Freundin machte sich Vorwürfe, daß sie durch ihre Fragen und Anleitungen diese Bekenntnisse hervorgehört, und durch die Erinnerung die lebhaften Schmerzen des guten Mädchens so grausam erneuert habe./ Das gute Geschöpf, so erzählte mir Natalie, war kaum auf diesem Punkte seiner Erzählung, oder vielmehr seiner Antworten auf meine steigenden Fragen, als es auf einmal vor mir niederstürzte, und, mit der Hand am Busen, über den wiederkehrenden Schmerz jener schrecklichen Nacht sich beklagte. Es wand sich wie ein Wurm an der Erde, und ich mußte alle meine Fassung zusammen nehmen, um die Mittel, die mir für Geist und Körper unter diesen Umständen bekannt waren, zu denken und anzuwenden.”(904/2권 289-290쪽)

나탈리에는 자신과 대화하는 중에 미농의 트라우마가 재발했다고 자책한다.³³⁾ 즉 미농은 이 대화로 인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타격을 입는다. 나탈리이가 자꾸 캐어묻자 미농의 트라우마적 기억이 상기되고 이 기억은 심장발작이라는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탈리에는 기억을 탐사하는 훌륭한 탐정이자 고고학자인데 하지만 훌륭한 심리치료사는 아니다. 심리치료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나탈리이의 강도 높은 질문은 숨겨진 트라우마를 발견해내기는 하지만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대방을 범람에 비유할 수 있는 흥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심장발작을 유발한다. 최근의 트라우마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일단 당사자가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자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흥분이 진정되었을 때만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트라우마의 재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³⁴⁾ 이런 의미에서 미농은 나탈리이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트라우마의 쇼크만을 다시 한 번 겪는다. 나탈리이의 질문이 원래는 미농의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를 정신적 극복 과정으로 이끌 수 없는, 너무 때 이른 과거의 탐구는 치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아이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다.³⁵⁾

33) ‘트라우마의 재발 *Retraumatisierung*’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예컨대 이 용어는 법률적 맥락이나 경찰조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혹은 희생자를 상대로 한 언론매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혹은 치료방식을 둘러싼 토론에서도 등장한다. 이 개념은 트라우마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이 환기됨으로써 직접적으로 트라우마의 증상들이 이전보다 심하게 나타날 경우 환자나 당사자의 상태를 지칭한다. 치료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환자에게 정서적 타격만 주고 증상의 지속적인 경감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접근방식을 트라우마의 재발이라고 지칭한다.(Vgl. Maercker 2009, 16)

34)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압도적인 흥분을 수반한다. 다시금 이러한 흥분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신은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인지하는 것을 방어하는 기제를 작동시킨다. 이에 따라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정신적으로 희미하게 인지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 트라우마의 계기가 인지됨으로써 비로소 트라우마의 정신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극복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Vgl. Barwinski 2008, 28 f.)

35) 미농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임상경험과 일치한다. 치료 시에 너무 일찍 과거의 탐구로 방향을 잡으면 그 결과 ‘트라우마적인 침투’(어느 순간 불가항력적으로 당사자를 덮쳐오는 트라우마의 기억)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된다.(Vgl. van der Kolk/McFarlane 2000, 43)

의사는 미농의 건강상태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의사가 환자를 완치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이라도 경감시켜 줘야하며 빌헬름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는 입장을 피력한다.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통을 보다 줄여줄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망상이 그 파괴력을 잃게 되고 환자의 애타는 그 리움이 평온한 정관 상태로 변하는 수가 자주 있지요.”³⁶⁾ “열정적인 장면 *leidenschaftliche Szene*”(905)이 연출될까 불안해하던 빌헬름의 예상과 달리 미농은 빌헬름의 등장에 아주 평온한 반응을 보이고 차츰 빌헬름과 함께 있는 것에 다시 익숙해져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이전보다 쾌활해지고 삶의 의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미농은 빌헬름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저 새들이 참 부러워요! 특히 그렇게 예쁘장하고 정다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걸 보면 그래요!”³⁷⁾ 이 말에는 자기 삶에서 아직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제대로 된 가족생활과 이에 수반되는 안정감에 대한 동경이 묻어난다.

그러나 미농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빌헬름의 약혼녀를 만나 빌헬름의 결혼이라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적 쇼크를 겪음으로써 최후를 맞게 된다. 미농과 펠릭스는 빌헬름과 나탈리에에게 테레제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달리기 경주를 한다. 격한 운동 자체만 해도 심장이 아픈 소녀에게는 이미 치명적이므로 나탈리에는 미농을 나무란다.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니? 아유, 이 가슴 뛰는 것 좀 봐! *ist Dir nicht alle heftige Bewegung untersagt? sieh, wie Dein Herz schlägt?*”(924) 그러나 미농에게 보다 치명적인 것은 갑자기 전해 듣게 된 빌헬름의 청혼사실과 그의 결혼 전망,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한 펠릭스의 반응이다. 미농과 펠릭스가 과거의 홀로 뛰어 들어갈 때 펠릭스는 이렇게 외친다. “테레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Mutter Therese ist da!*”(924) 이것은 아이들이 테레제와 빌헬름 사이에 열정적인 장면이 연출되기 이전에 이미 청혼의 결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

36) “wo wir nicht helfen können, sind wir doch schuldig zu lindern, und wie sehr die Gegenwart eines geliebten Gegenstandes der Einbildungskraft ihre zerstörende Gewalt nimmt, und die Sehnsucht in ein ruhiges Schauen verwandelt”(905/2권 291쪽)

37) “Wie beneidenswert sind die Vögel, besonders wenn sie so artig und vertraulich ihre Nester bauen.”(908)

한다. 순진무구한 펠릭스는 테레제가 빌헬름을 직접 만나 승낙의 말을 건네기 이전에 (편지로는 이미 청혼을 승낙했지만) 이미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받아들인 셈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미농에게 (비록 일방적인 관계이지만) 자기 연인의 아들인 펠릭스는 일종의 양자와 같다. 테레제가 펠릭스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미농은 자신의 상징적인 아들을 잃고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을 빼앗긴다. 이런 맥락에서 미농의 달리기 경주를 심신상관적인 의지적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³⁸⁾ 그녀는 테레제가 왜 나탈리에를 찾아왔는지를 들은 후에 자기가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달린 것이다. 미농 자신의 발언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녀는 나탈리에의 질책에 이렇게 대답한다. “터져버리라지요! 벌써 너무 오랫동안 뛰었던 걸요. Laß es [mein Herz] brechen! [...] es schlägt schon zu lange.”(924) 미농은 빌헬름, 테레제, 펠릭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이 가족 안에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음을 인식한다. 바로 이 순간 방금 전까지 세 차게 뛰던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박동을 멈춘다.

그녀[빌헬름은] 그녀[테레제]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그에게로 뛰어 가서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오, 나의 테레제!”하고 그는 소리쳤다.

“내 친구! 내 애인! 내 남편! 그래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여자예요!”하고 그녀는 뜨거운 키스를 퍼부으며 외치는 것이었다.

펠릭스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테레제 어머니, 나도 여기 있어요!” 나탈리에에는 거기에 우뚝 선 채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미농이 왼손을 가슴께로 가져가더니 오른팔을 쪽 내뻗으며 비명을 지르고는 나탈리에의 발치에 죽은 듯이 쓰러졌다.³⁹⁾

38) 하네로레 술라퍼가 미농의 최후를 “심신상관적인 의지적 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술라퍼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지 않는다.(Vgl. Schlaffer 1980, 50)

39) “Er [Wilhelm] tat einen Schritt gegen sie [Therese], sie sprang auf ihn los und hing an seinem Halse. O meine Therese! rief er aus./ Mein Freund! Mein Geliebter! Mein Gatte! ja auf ewig die Deine, rief sie unter den lebhaftesten Küssen./ Felix zog sie am Rocke und rief: Mutter Therese, ich bin auch da! Natalie stand und sah vor sich hin, Mignon fuhr auf einmal mit der linken Hand nach dem Herzen, und indem sie den rechten Arm heftig ausstreckte, fiel sie mit einem Schrei zu Nataliens Füßen für tot nieder.”(924/2권 321쪽) 단락이 바뀌는 부분을 /로 표시했다.

테레제가 빌헬름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은 미농의 이탈리아 노래를 연상시킨다. 이 노래의 서정적 청자인 빌헬름은 일찍이 서정적 자아, 미농에 의해 “내 애인 *mein Geliebter*”, “내 보호자 *mein Beschütz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Vater*”로 명명되었다. 테레제는 이제 빌헬름을 자기 신랑으로 포용할 수 있지만 미농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펠릭스가 자신의 연적을 “테레제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녀의 심장은 멈춰 버린다. 자기가 사랑하는 두 사람과 곧 헤어져야 하리라는 인식으로 인해 그녀의 심장은 말 그대로 터져버린다. 극복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타격은 심장발작이라는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된다.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괴테의 장편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트라우마로 점철된 삶을 살다간 비극적 인물 미농을 재조명해 보았다. 소설 내에서 “수수께끼 *das Rätsel*”, “기묘한 *wunderlich*”, “비밀로 가득 찬 *geheimnisvoll*”, “특이한 *sonderbar*” 등의 수식어로 묘사되어 독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인상을 주는 이 인물의 의문스러운 말과 행동과 특성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이해함으로써 상당 부분 설명된다. 미농의 부족한 언어능력과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성, 무대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유괴와 학대의 트라우마에 기인한다. 그녀의 반복되는 심장발작은 과도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인성 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작품에서 미농과 빌헬름의 관계가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형성한다. 나탈리가 치료 목적으로 시도한 문진은 오히려 미농의 트라우마를 재발시킴으로써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탐의 모임의 의사와 나탈리가 미농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트라우마의 서술불가능성을 잘 드러내 보인다. 짧은 일생 동안 마지막까지 고독한 삶을 살다 간 미농은 하프 악사, 스페라타, 아우렐리에 등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나머지 인물들과 함께 정신적 상처를 극복해 가는 주인공 빌헬름에 대비되는 소설의 나머지 한 축을 이룬다.

현대 정신의학의 연구 성과를 200여 년 전의 문학작품 분석에 활용한 본고의 시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할

지라도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정신적 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증상에는 “인류학적 상수 eine anthropologische Konstante”(Fricke 2004, 9)라고 부를 만한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괴테의 소설이 작중인물의 심리와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의학자들이 다양한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즉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밝혀낸 트라우마라는 정신적 현상 내지 경험의 공통분모를 문학작품 속의 허구적 인물에게서 다시 발견해 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에 인간존재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담아내는 문학의 고유한 지식전달방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문헌

- 요한 볼프강 폰 괴테(1999):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 2(안삼환 옮김), 민음사.
 Goethe, Johann Wolfgang(1992): Wilhelm Meisters Lehrjahre. In: FA 9. Hrsg. von Wilhelm Voßkamp und Herbert Jaumann. Frankfurt a. M.
 Goethe, Johann Wolfgang(1988): Wilhelm Meisters Lehrjahre. In: MA 5. Hrsg. von Hans-Jürgen Schings. München und Wien.
 Goethe, Johann Wolfgang(1986): Tag- und Jahreshefte. In: MA 14. Hrsg. von Reiner Wild. München und Wien.
 Kleist, Heinrich von: Sämtliche Werke und Briefe. Hrsg. von Helmut Sembdner. München ²2008.

2차문헌

- 오순희(2014): 미몽의 죽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타나는 자연과 젠더 질서의 충돌. 괴테연구 제27집, 101-123.
 임홍배(1996): 역사와 이데올로기.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의 미몽의 비극. 괴테연구 제8집, 38-65.
 임홍배(2014): 괴테가 탐사한 근대. 슈투름 운트 드랑에서 세계문학론까지. 창비.
 Ammerlahn, Hellmut(2003): Imagination und Wahrheit. Goethes Künstler-

- Bildungsroman ‚Wilhelm Meisters Lehrjahre‘. Struktur, Symbolik, Poetologie. Würzburg.
- Barwinski, Rosmarie(2008): Stufen der Abwehr im Integrationsprozess traumatischer Erfahrungen. In: Rosmarie Barwinski (Hrsg.): Themenschwerpunkt. Abwehrmechanismen gegen die Kenntnisnahme psychischer Traumatisierung. Zeitschrift für Psychotraumatologie, Psychotherapiewissenschaft, Psychologische Medizin 6. Jg. Heft 1, 27-33.
- Blessin, Stefan(1996): Goethes Romane. Aufbruch in die Moderne. Paderborn.
- Cho, Seonghee(2015): Verletzte Seelen. Psychische Traumata in Goethes Romanen *Wilhelm Meisters Lehrjahre* und *Die Wahlverwandtschaften*. Würzburg.
- Eissler, Kurt R.(1985): Goethe. Eine psychoanalytische Studie 1775 - 1786. Aus dem amerikanischen Original (1963) übersetzt von Peter Fischer. Basel [u. a.] 1985. Bd. 2.
- Fick, Monika(1987): Das Scheitern des Genius. Mignon und die Symbolik der Liebesgeschichten in Wilhelm Meisters Lehrjahren. Würzburg.
- Fischer, Gottfried/Riedesser, Peter(2003): Lehrbuch der Psychotraumatologie. 3., aktualisierte und erweiterte Auflage. München und Basel.
- Fricke, Hannes(2004): Das hört nicht auf. Trauma, Literatur und Empathie. Göttingen.
- Hörisch, Jochen(1983): Gott, Geld und Glück. Zur Logik der Liebe in den Bildungsromanen Goethes, Kellers und Thomas Manns. Frankfurt a. M.
- Käser, Rudolf(1998): Arzt, Tod und Text. Grenzen der Medizin im Spiegel deutschsprachiger Literatur. München.
- Kim, Hee-Ju(2005): Der Schein des Seins. Zur Symbolik des Schleiers in Goethes ‚Wilhelm Meisters Lehrjahre‘. Tübingen.
- Klann-Delius, Gisela(2008): Spracherwerb. 2. Auf., Stuttgart/Weimar.
- Kniesche, Thomas W.(1993): Die psychoanalytische Rezeption von Mignon. In: Gerhart Hoffmeister (Hrsg.): Goethes Mignon und ihre Schwestern. Interpretationen und Rezeption. New York [u. a.].
- Maercker, Andreas(Hg.)(2009): Posttraumatische Belastungsstörungen. 3., vollständig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Heidelberg.

- Mayer, Mathias(1989): Selbstbewusste Illusion. Selbstreflexion und Legitimation der Dichtung im „Wilhelm Meister“. Heidelberg.
- Nager, Frank(1992): Der heilkundige Dichter. Goethe und die Medizin. 3. Aufl., Zürich u. München.
- Pynoos, Robert S. u. a.(2000): Traumatische Belastungen in Kindheit und Jugendalter. Neuere Entwicklungen und aktuelle Kontroversen. In: Traumatic Stress. Grundlagen und Behandlungsansätze. Theorie, Praxis und Forschungen zu posttraumatischem Streß sowie Traumatherapie Hrsg. von B. A. van der Kolk u. a. Paderborn, 265-288.
- Scheidt, Carl Eduard und Waller, Nicola(2006): Bindungsdesorganisation und narrative Kohärenz. Psychische Verarbeitungsformen von Trauma und Verlust aus der Sicht der Bindungsforschung. In: Zeitschrift für Psycho-traumatologie, Psychotherapiewissenschaft, Psychologische Medizin 4. Jg. Heft 3, 53-65.
- Schlaffer, Hannelore(1980): Wilhelm Meister. Das Ende der Kunst und die Wiederkehr des Mythos. Stuttgart.
- Schlaffer, Heinz(1978): Exoterik und Esoterik in Goethes Romanen. In: Goethe-Jahrbuch 95, 212-226.
- Schößler, Franziska(2002): Goethes Lehr- und Wanderjahre. Eine Kultur-geschichte der Moderne. Tübingen [u. a.].
- Van der Kolk, Bessel A./McFarlane, Alexander C.(2000): Trauma – ein schwarzes Loch. In: Traumatic Stress, 27-45.
- Van der Kolk, Bessel A.(2000 a): Trauma und Gedächtnis. In: Traumatic Stress, 221-240.
- Van der Kolk, Bessel A.(2000 b): Die Vielschichtigkeit der Anpassungsprozesse nach erfolgter Traumatisierung. Selbstregulation, Reizdiskriminierung und Entwicklung der Persönlichkeit. In: Traumatic Stress, 169-194.

Zusammenfassung

Mignon als verletzte Seele

– Goethes *Wilhelm Meisters Lehrjahre* aus der Perspektive der Trauma-Theorie

Cho, Seonghee (Seoul National Uni)

Die Figur Mignon lässt sich als versteckter Kern der *Lehrjahre* auffassen, die Goethe selbst „eine der inkalkulabelsten Produktionen“ genannt hat. Gegenüber Madame Staël, die „Mignon bloß als Episode beurteilt“, äußerte Goethe einmal, dass „doch das ganze Werk dieses Charakters wegen geschrieben sei“. Mignon ist ein „Rätsel“ dieses inkalkulabelsten Romans, zu dem in der Forschung viele verschiedene Lösungen vorgeschlagen worden sind. Mignon wurde bisher ausgesprochen häufig sowohl auf symbolischer, als auch auf poetologischer Ebene gedeutet. Jedoch hat Mignon meines Erachtens nicht nur als Symbolfigur, sondern auch als realistische Figur eine eigene Aussagekraft und Brisanz. So ist die Darstellung Mignons im Roman auch auf der realistischen Ebene schlüssig, besonders in Bezug auf ihre Traumata.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Mignon als eine lebendige Person der fiktiven Realität betrachtet. Dabei werden die innere Logik ihrer Psyche, die Entwicklung ihrer Liebe, ihres sinnlichen Begehrens sowie ihrer Krankheit beachtet. Auch die Frage, was Mignon zum Tode führt, bildet ein zentrales Problem dieser Arbeit.

Mignon wird im Roman als „Rätsel“, „wunderlich“, „geheimnisvoll“ und „sonderbar“ bezeichnet, sodass sie dem Leser einen geheimnisvollen Eindruck vermittelt. Ihre rätselhaften Worte und Handlungen sowie ihr eigentümlicher Charakter enthüllen sich anhand der modernen Traumatheorie. Mignons mangelhafte Sprachkompetenz, ihre Verschwiegenheit und ihre Vermeidung der Bühne lassen sich auf ihre Traumata aufgrund der Entführung und der Misshandlungen zurückführen. Ihre wiederholten Herzanfälle sind psycho-

somatisch bedingt, d. h. exzessive psychische Belastung manifestiert sich als ein körperliches Symptom. Die intensive Befragung durch Natalie, die eigentlich zur Therapie dienen sollte, belastet das Kind eher sowohl emotional als auch körperlich und verschlechtert schließlich seinen Krankheitszustand. Wie Mignons Geschichte von Natalie und dem Medikus der Turmgesellschaft rekonstruiert und narrativ repräsentiert wird, zeigt die Unerzählbarkeit des Traumas. Mignon überwindet nicht ihre Traumata wie der Harfner, Sperata oder Aurelie. Ihre tödlichen Traumata stehe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zu dem langwierigen Heilungsprozess des Protagonisten, Wilhelm.

주제어: 미농, 빌헬름 마이스터, 트라우마, 육체적 증상화, 서술불가능성

Schlüsselbegriffe: Mignon, Wilhelm Meister, Trauma, Somatisierung, Unerzählbarkeit

필자 E-Mail: pylades@hanmail.net

투고일: 2015.10.30. / 심사일: 2015.11.26. / 심사완료일: 2015.12.14.